농촌정보화마을사업이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유홍재** 채은희***

Keywords
농촌정보화마을사업(Rural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삶의 질(quality of life)

Abstract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ffects of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A survey was carried out in 5 rural areas to which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ject had been applied. These areas were then compared to rural areas where it wasn't applied. In addition, a literature review, in-depth interviews, and on-site inspections were conducted from October 20th to November 11th, 2008.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quality of life was higher for the residents of the applied areas of the Information Network Village than the non-applied areas. In a multiple-regression analysis, the ability to use a computer affected the quality of life. When age, sex, education, living standard and job were added as control variables, these independent variables didn't affect the quality of life. Only the high-education group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Also, in the path analysis, the ability to use a computer and daily hours of computer use affected the quality of life of the residents. In conclusion, the rural information network village program had a positive effect on quality of life.

차례

1. 서론
2. 이론적 고찰
3. 연구 방법
4. 연구 결과
5. 결론

---

*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을 자료로 재구성한 것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상임위 간사
*** 국립서울병원 국립정신보건교육연구센터, 보건학박사, 교신저자

1. 서론

우리나라는 산업사회의 활발한 경제개발로 짧은 시간 내 국민경제 규모가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으나, 이러한 경제성장의 수혜는 도시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어져 도·농간의 정보와 문화적 격차는 농촌공동화와 도시화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이에 정부는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전반에 나타나는 도·농간의 양극화현상을 해소하고자 이른바 '지역정보화'라는 개념으로 1996년 당시 행정자치부의 정보화사업촉진계획 아래 정보화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게다가 당시 정보통신부와 농림부의 주도 아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정책개발을 추진하였고 2001년에는 정보통신부에 의해 '정보격차해소 중장기계획(2004~2008)'이 확정되었다.

'정보화'는 인간에 삶의 질을 높여주며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보다 유익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문화의 발달과 서비스 향상을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명한(1993)은 정보화 사회가 삶의 질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며, 한국전산원(1996)은 정보화가 국민의 개인생활 및 직장생활의 삶의 질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경험적으로 밝혀졌다고 하였다. 또한, 이석재·조주은(1997)에 의하면 정보화는 국민의 삶의 질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정보화로 나타나는 역기능이 삶의 질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우열(2000)은 지역과 계층 간의 정보 집중화와 사유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정보소유의 불균형은 사회계층별 격차와 지역 간 불균형 및 대인간의 접촉기회를 감소시킴으로써 비인간화 현상과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삶의 질이 악화될 것이라고 하였다(한국전산원 1996). 하지만 지역사회로부터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활용은 궁극적으로 국가전반에 걸쳐 활발한 정보교류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도·농간의 격차를 완화시키고 해소할 수 있다. Schuler(1996)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도 도·농간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며 운영하고 있다[1].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지역사회로부터 시작되는 정보화의 새로운 시도가 농촌정보화마을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더욱이 도시에 비해 낙후된 오늘날의 우리농촌 현실에 비추어볼 때 농촌사회도 글로벌 시대의 변화를 심각하게 깨닫고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경쟁력을 갖추어야 할 시점에

---

[1] 선진국에서도 '지역정보네트워크사업' 혹은 '전자마을구축사업'으로 구체화되어 지역사회 주민의 일체감 강화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농촌지역의 정보화마을사업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 간주된다. 농산물의 전자상거래와 과학적 영농은 농촌사회의 소득을 증대시키거나 농촌주민의 문화생활과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농촌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동인이 될 수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정보화마을사업'이라는 프로그램이 농촌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정보화마을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그 차이를 비교 고찰함으로써, 농촌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수립과 정보화마을사업의 발전적 모형 구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정보화 및 정보화 사회의 개념

21세기에 접어든 현재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은 지식정보화를 현대산업사회의 중심으로 만들고 있다. 행정안전부(2008)는 국가정보화를 선진일류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는 핵심수단으로 선정함으로써, 인터넷의 보편화와 사회 전반에 걸친 정보화 확산이 정보화의 촉진시대를 지식정보화의 활용시대로 전환시키면서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보'란 어떤 사물, 상태 등 관련된 모든 것들이 수신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전달되어 불확실성을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김옥성(2005)은 수신자가 의식적인 행위를 취하도록 의사결정, 선택의 목적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데이터의 집합이라 하였다. '정보화'의 의미는 학문적 배경이나 적용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되지만, 일반적으로 중요한 자원과 사회경제활동의 중심으로서 정보의 생산, 가공, 처리, 문화 등의 사회전반에 걸쳐 널리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정보화 촉진 기본법」에 의하면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 유통 및 활용하는 사회 각 분야의 활동에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장중탁 2000). 이와 같이 정보화에 대한 정의가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 다양하지만 정보화 사회에 대한 공통된 의견은 정보의 가치가 물질이나 에너지보다 높아서 정보의 생산, 저축, 분배가 중요한 활동이 되는 사회를 말한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정보화 사회가 형성되는 사회, 경제, 기술적 배경 등을 고려해 볼 때, 한 사회의 경제와 복지를 위하여 정보가 창출되고 저장 활용됨으로써 정보교환이 사회의 중심활동이 되는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생활에 큰 변화를 준다고 할 수 있다(최미영 2002)[2].

2.2. 삶의 질의 개념

일반적으로 삶의 질 개념은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개개인이 처한 상황조건의 질을 의미하는 객관적 요소와 함께 주관적 안녕 및 개인으로 하여금 성장과 발전을 가져오는 주관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는 복합개념으로서, 객관적인 상황조건과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였다(박대식·마상진 2007).

삶의 질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60년대 서구사회에서 시작되어 1970년대 무렵 인간 삶의 질적 가치를 중시하며 확대 개발되었다. 전통적 의학의 목적인 생명보존과 수명연장보다 생의 의미와 개인의 질적인 삶 측면이 더욱 부각되면서 의학적 가치관과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이르러 양적 성장보다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전체국민이나 도시지역주민의 일반적 사회지표 및 복지지표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농촌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할 뿐 아니라, 농촌지역 삶의 질에 관한 지표가 농촌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다. 1979년 통계청의 한국사회지표를 시작으로 삶의 질에 관한 주관적 지표가 이용되기 시작했으며, 신도철(1981)은 농촌과 도시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분석하였다. 또한, 노유자(1988)는 삶의 질이란 신체, 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지각하는 주관적 안녕이라고 하였으나 삶의 질은 주관적 만족감의 총량이거나 개인적 특성요인과 사회경제·문화·환경적인 조건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라고도 하였다(이영균 1997; 박대식·마상진 2007; 재인용).

그 외 Dubos(1976)는 삶의 질은 매우 주관적인 판단으로 일상생활에서 얻은 심오한 만족이라 하였고, Padilla et al.(1985)은 신체, 정신, 사회적 측면에서 정신 및 신체적

---

[2] 정보화 사회는 첫째, 사회적으로 정보에 대한 욕구의 다양화와 함께 개인 욕구의 변화 둘째, 자원이용과 생산성향상이라는 경제적 논리로 인한 정보화의 필요성 대두 셋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컴퓨터의 보급 확대 등이 큰 변화를 초래하므로 사회, 경제활동의 중심이 재화생산에서 서비스와 정보, 지식의 생산으로 옮겨지는 사회라고 정의함.

안녕, 신체상과 사회적 관심, 진단 및 치료에 대한 반응의 평가들이라고 정의하였다. Taft(1985)는 자아존중감은 인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지하게 하지만 자신과 직면한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 무력감을 느끼게 되면 삶의 질은 저하된다고 하였다. 특히, Kim, Yoo, Kim & Han(2003)은 인구사회학적 요소 중 성별과 연령이 삶의 질의 중요한 변수라고 하였으며 연령과 성별 등의 인구학적 특성 외 신체기능과 심리적 요소 및 건강에 대한 인식이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삶의 질은 객관적 요소 및 주관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경제, 사회, 환경, 심리 및 문화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어우르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삶의 질'은 '개인의 주관적 특성과 더불어 사회·환경적 요소를 총체적으로 어우르는 상태'로 정의하고자 한다.

2.3. 농촌 정보화마을 사업과 삶의 질의 관계

농촌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 정보격차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2002년 1차 시범마을을 조성하면서 시작되었다. 전국에 78개 마을을 조성하여 지역정보화의 표준모델을 제시하였으며, 2003년 2차 시범마을을 통해 선진국형 농어촌 구현이란 목적 아래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2004년에 실시한 3차, 4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부터 정보화마을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사용하였으며, 2006년 5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은 도농, 지역, 계층 간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이용 생활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이후 2007년 6차, 2008년 7차 정보화마을사업은 정보격차해소 및 조성 이후의 자립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현재 실시되고 있는 2009년 8차 추진계획도 순수 자치단체 자체 조성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2002년부터 실시한 농촌정보화마을은 2009년 1월 기준 현재 총 358개의 마을이 조성되었으며, 2014년까지 약 800여 마을로 확대될 계획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된 정보화마을 사업의 단점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최창우 2008; 김정원 2009). 첫째,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저조한 점이다.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관심 및 동기가 부족함으로써 일부 주민들에 의해 사업이 주도되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정보화마을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양적 팽창 위주로 조성되어 질적 측면의 콘텐츠가 부족하고, 차별화된 상품개발 및 다각적인 운영방법이 부재하다는 지

적을 받고 있는데, 이는 마을 주민들의 자체 정보화역량의 부족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농촌의 구조적인 한계이다. 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이 일부에 그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자체적인 활성화를 통한 사업 유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넷째, 대형 쇼핑몰과의 경쟁에서 취약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에 관한 학술적 정책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정보화마을에 대한 평가방법의 탐색(서진완 2002)등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약 10여 편의 연구가 발표되었으나 연구주제가 대부분 정보화사업 또는 인터넷 사업 활성화와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등에 집중되어 있다. 김현희(2004)는 지역정보화사업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이병수(2004)와 김귀영(2005)은 정보화마을 주민들의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만족도를 조사하였으나 정보화사업이 조성되지 않은 지역주민과의 비교연구가 병행되지 않아서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없었다. 그 외 농촌지역에 구축된 정보화마을에 대한 개략적 평가와 발전전략 제시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있지만 대체로 정보화마을사업이 조성된 지역에 대한 단일사례연구와 2차 자료 분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정보화마을은 도시와 농촌을 포함한 정보 소외지역에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여 정보접근 기회를 높이고, 주민의 실생활 및 경제활동과 밀접한 콘텐츠를 구축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정보생활화 및 지역커뮤니티 형성을 촉진하는 마을 구축'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농촌 정보화마을 사업은 단순히 도시와 농촌 간의 정보격차 해소뿐 아니라 과거의 타성에 젖어있는 농촌지역에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과 혁신적인 변화를 불어넣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김귀영(2005)의 연구에서 농촌 정보화마을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 및 소득 증가를 이끌어 냈으며, 행정안전부(2003) 및 김동원·김부철(2006)의 연구에서도 주민들이 인터넷으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교육, 문화, 의료, 행정 등의 정보콘텐츠를 습득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을 말하고 있다. 이석신(2003)은 정보화사업이 지역주민의 경제활동과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의 발판이 될 것을 말하고 있다. 즉, 위 사업을 통하여 지역경제와 국가가 균형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농어촌 정보 소외지역에서의 인터넷이용 접근성이 제고되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정보의 생활화와 소득증대는 결국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특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므로 정보화마을사업은 지역사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농촌 정보화마을 조성은 지역특성에 맞는 최신 미디어와 네트워크를 갖추고 해당지역의 행정, 사회생활, 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구체적

으로 제공하여 지역 간 격차해소와 균형적인 국가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컴퓨터와 통신기술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와 지식이 농촌지역사회와 경제적 자원의 중심이 될 뿐 아니라 정보교류 및 사회, 복지 경제, 문화 등 농촌 주민들의 삶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획기적인 정책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설문지조사방법은 목적표집법이다. 조사대상지역은 서부경남지역 정보화마을 중 지리적 위치가 각각 다른 사천고읍 단감마을, 남해지족 갯마을, 하동삼신 녹차마을, 하동 축지 대봉 감 마을, 하동북방 딸기마을 등 5개 지역으로, 각 지역 주민 중 본 연구조사 참여에 동의를 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주민을 최종대상자로 정하였다. 또한 비교대상지역은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정보화마을과 인접한 마을로 정보화마을지역 주민들과 생활 상태와 문화수준 및 가구 수가 비슷한 지역인 남해 지족 3리 마을, 하동군 옥종면 월횡 마을, 안계 마을 및 사천시 축동면 길평 마을과 곤명면 초량리 마을 등 5개 마을로 정보화마을 지역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3.2. 자료 수집 기간과 방법

예비조사는 10월 초순 약 1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을 기초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사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예비조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여 재 작성한 뒤 2008년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22일에 걸쳐 직접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방법은 직접개별면담과 한 곳에서 그룹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는 집단조사방법을 병행하였다. 정보화마을지역은 총 260부를 배포하여 총 210부가 회수되었으며 이용 가능한 자료는 202부이다. 또한, 정보화마을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일반지역에는 총 250부를 배포하였으나 이용 가능한 최종자료는 200부이다.

3.3. 측정도구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선행연구 및 참고문헌을 기초하여 연구자가 개발하였으며 정보화마을과 일반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들 외 정보화시설 활용도 영역, 정보화마을 조성 후 주민의 느낌과 관련한 영역, 도시와 농촌 간 농촌정보격차해소 영역 및 삶의 질에 관한 영역 총 5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 세부범위를 보면, 먼저 정보화 시설의 활용도 여부는 8문항으로 주로 컴퓨터 사용유무 및 사용시간, 인터넷을 통한 은행업무, 전자우편, 화상전화 사용여부, 활용능력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되었고, 정보화마을 조성 후 주민의 느낌과 관련한 영역은 5문항으로 일상생활의 변화, 소득의 증감, 사생활 침해 문항으로 정보화마을 주민들에 한해 측정하였다. 도시와 농촌 간 정보격차해소 영역은 6문항으로 현재 정보격차의 차이, 마을 조성 후 정보격차 해소 여부 및 지역경제 발전 영향, 사업 활성화 방안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응답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들에 대한 응답은 이분형 척도와 Likert 4점 및 5점 척도로 구성하여, 약 15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사전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재 수정하였다.

또한, 삶의 질이란 신체, 정신,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 각 개인이 자각하는 주관적 안녕으로서 신체적 측면은 신체상태 및 기능, 정신적 측면은 정서 상태와 자아개념을, 사회적 측면은 인간관계를 포함한 사회생활을 의미하며 상황적 조건인 경제적 측면에 수입이나 의료비 등의 재정문제가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삶의 질의 측정도구는 Padilla et al.(1983)이 개발한 전체적인 The Quality of Life에 기초하여, Rosenberg(1965)의 Self-Esteam Scale과 노유자(1988) 및 구성타당도 검증의 요인분석으로 Cronbach' alpha .751인 32문항을 도출한 조옥성(2006) 등의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즉 건강과 활력, 정서상태, 경제활동, 자아존중감, 사회생활, 가족관계 및 가정생활 등 모두 7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문항의 수는 총 31개이며 '건강과 활력'요인 4개 문항, '정서상태'요인 7개 문항, '경제활동'요인 3개 문항, '자아 존중감'요인 6개 문항, '사회생활'요인 6개 문항, '가족친척'요인 2개 문항, '가정생활'요인 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반응은 Likert 5점 평정척도로 '매우만족 또는 매우 그렇다'가 5점, '매우 불만 또는 전혀 그렇지가 않다'에 1점이 주어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질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삶의 질 전체문항의 Cronbach' alpha = .917이며 7개 요인별 Cronbach' alpha도 <표 1>과 같이 모든 요인별 범위가 .698~.870으로 나타나 삶의 질 전체문항과 각 요인별 문항 간의 신뢰도 모두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표 1. 삶의 질 측정도구의 신뢰도 분석

전체문항 및 요인별 구분		문항수	Cronbach's α
삶의 질	전체문항	31	.917
	건강과 활력	4	.742
	정서상태	7	.870
	경제활동	3	.839
	자아존중감	6	.815
	사회생활	6	.841
	가족관계	2	.698
	가정생활	3	.771

3.4. 조사 내용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사용한 설문지는 정보화마을과 일반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각각 다르게 작성하여 IRB(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유의수준 $p<.05$, $p<.01$에서 검증하였으며 SPSSWIN 12.0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한 자료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수와 백분율을 통한 기술 분석을 하였고 정보화마을과 일반마을 주민 간 동질성 확인을 위해 교차분석으로 $\chi 2$ 값을 구하였다. 둘째, 정보화마을과 일반마을의 정보화시설 활용도 파악을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정보화마을 조성 후 생활 변화는 기술 분석으로 파악하였다. 넷째, 삶의 질 측정도구의 항목별 내적 일치도를 알기 위한 신뢰도 검정을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구하였다. 다섯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삶의 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표본 t검정(t-test)과 일원배치분산분석(one way-ANOVA)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특성적 변인과 주요 정보화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하였다. 일곱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파악하고자 삶의 질 7개 요인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인구특성별 변인을 통제한 후 주요 정보화 변인들 중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다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여덟 번째, 개별 변인들이 구조적으로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일반적 특성과 동질성 비교

응답자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대상자 합계 402명 중 정보화마을사업 지역 주민은 남자 127명(62.9%), 여자 75명(37.1%)이었고, 일반마을 지역 주민은 남자 138명(69.0%), 여자 62명(31.0%)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은 54세였다. 교육수준은 고졸이 165명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동질성비교

특성	구분	정보화마을 명(%)	일반마을 명(%)	계	x^2
성별	남성	127 (62.9%)	138(69.0%)	265(65.9%)	1.680
	여성	75(37.1%)	62(31.0%)	137(34.1%)	
연령	39세 이하	30(14.9%)	27(13.5%)	57(14.2%)	4.504
	40대	32(15.9%)	48(24.0%)	80(20.0%)	
	50대	61(30.3%)	50(25.0%)	111(27.7%)	
	60대 이상	78(38.8%)	75(37.5%)	153(38.2%)	
교육 수준	초등학교 이하	24(11.9%)	35(17.5%)	59(14.7%)	4.380
	중졸	59(29.2%)	54(27.0%)	113(28.1%)	
	고졸	90(44.6%)	75(37.5%)	165(41.0%)	
	대학교 이상	29(14.4%)	36(18.0%)	65(16.2%)	
결혼 상태	결혼	181(89.6%)	176(88.0%)	357(88.8%)	.260
	기타	21(10.4%)	24(12.0%)	45(11.2%)	
종교	불교	141(69.8%)	158(79.0%)	299(74.4%)	4.848
	그 외 종교	30(14.9%)	18(9.0%)	48(11.9%)	
	없음	31(15.3%)	24(12.0%)	55(13.7%)	
동거 형태	혼자 산다	14(6.9%)	13(6.5%)	27(6.7%)	1.865
	부부만 산다	98(48.5%)	98(49.0%)	196(48.8%)	
	부모 및 가족과 함께 산다	54(26.7%)	72(36.0%)	116(28.9%)	
	기타	36(17.9%)	42(8.5%)	63(15.7%)	
월 가구 소득	100만원 미만	80(39.6%)	85(42.5%)	165(41.0%)	.815
	100-150만원	52(25.7%)	44(22.0%)	96(23.9%)	
	150만원 이상	70(34.7%)	71(35.5%)	141(35.1%)	
직업	농업, 임업, 어업	139(68.8%)	109(54.5%)	248(61.7%)	8.710 (.003)**
	기타	63(31.2%)	91(45.5%)	154(38.3%)	
생활수준	높음	23(11.4%)	17(8.5%)	40(10.0%)	19.793 (.000)**
	보통	157(77.7%)	126(63.0%)	283(70.4%)	
	낮음	22(10.9%)	57(28.5%)	79(19.7%)	

(41%)으로 가장 많았고, 결혼여부는 결혼을 한사람이 357명(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종교는 불교가 299명(74.4%), 기독교가 26명(6.5%), 천주교가 9명(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동거형태는 부부만 산다가 196명(48.8%), 부모 및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가 116명(2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가구 소득은 150만 원 이상이 141명(35.1%)이었으며 50만원 미만인 경우도 59명(14.7%)으로 나타났다. 생활수준과 직업을 살펴보면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283명(70.4%)과 농업/어업/임업이 248명(61.7%)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정보화마을과 일반마을 응답자들의 주요 특성별 동질성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동거형태 및 직업과 생활수준을 재분류하여 교차 분석한 결과 직업과 생활수준을 제외한 다른 항목에서는 두 지역 응답자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정보화 시설 활용도

4.2.1. 컴퓨터 1일 평균 사용 시간 및 전자 상거래 경험

마을정보센터나 또는 가정에 설치된 컴퓨터를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사용하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정보화 마을의 경우 1시간 이상 사용하는 경우가 188명으로 전체의 93.1%가 컴퓨터를 사용하였으나, 일반 마을의 경우 107명(53.8%)만이 1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해 상대적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1일 컴퓨터 사용 시간

변인			사용않음	약1시간	약2시간	매우자주	계	X^2
집단 구분	정보화 마을	빈도	14	132	48	8	202	85.832**
		%	6.9%	65.3%	23.8%	4.0%	100.0%	
	일반 마을	빈도	92	66	28	13	199	
		%	46.2%	33.2%	14.1%	6.5%	100.0%	
계	빈도		106	198	76	21	401	
	%		26.4%	49.4%	19.0%	5.2%	100.0%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5%,1%를 나타냄.

4.2.2. 컴퓨터 활용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정도를 알아본 결과는 <표 4>과 같다. 정보화 마을의 경우 컴퓨터 활용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47명(23.3%)이였으나, 일반마을의 경우 17명(8.5%)으로 나타나 정보화 마을과 일반마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컴퓨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보화 마을에서는 18명(8.9%)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마을은 127명(63.5%)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컴퓨터 활용 능력 정도

변인			못한다	보통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계	X^2
집단 구분	정보화 마을	빈도	18	137	43	4	202	135.289**
		%	8.9%	67.8%	21.3%	2.0%	100.0%	
	일반 마을	빈도	127	56	11	6	200	
		%	63.5%	28.0%	5.5%	3.0%	100.0%	
계	빈도		145	193	54	10	402	
	%		36.1%	48.0%	13.4%	2.5%	100.0%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5%,1%를 나타냄.

4.3. 정보화마을과 일반마을 주민의 삶의 질

4.3.1. 정보화사업조성 후 생활변화에 따른 삶의 질

정보화가 조성된 후 주민이 느낀 생활 변화정도에 따라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정보화가 조성된 후 '생활이 변했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삶의 질 평균점수는 108.24으로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집단(95.54점)과 변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집단(105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검정통계량 값 F=5.376(p=.000)으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컴퓨터 사용 필요성의 정도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차이는 '컴퓨터 사용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집단의 삶의 질 점수가 108.74점으로 '컴퓨터사용이 필요하지 않다'와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집단보다 F=7.049(p=.000)와 유의수준 5%에서 높게 나타났다.

4.3.2. 주요 생활변화변인 및 삶의 질 요인들 간의 상관분석

정보화마을사업 주민의 삶의 질과 앞에서 살펴본 컴퓨터 1일 사용량, 컴퓨터 활용, 생활변화 등 생활변인들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컴퓨터 1일 사용량은 삶의 질의 하위변인 중 정서상태, 자아존중감, 가정생활요인과 정의 상관을 나타냈고, 컴퓨터 활용 능력은 경제활동과 가정생활요인을 제외한 모든 삶의 질 요인과 정의 상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보화마을 조성 후 느끼는 생활변화는 사회생활, 가족관계, 가정생활요인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정보화마을 조성 후 느끼는 정보격차의 해소정도는 사회생활요인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표 5> 참조).

표 5. 주요생활변인과 삶의 질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

구분	컴퓨터 1일 사용량	컴퓨터 활용	생활 변화	전체 삶의질	건강 /활력	정서 상태	경제 활동	자아 존중감	사회 생활	가족 관계	가정 생활
컴퓨터1일 사용량	1			.130							
컴퓨터활용	.312**	1		.271**							
생활변화	.189**	.178*	1	.150*							
전체삶의질	.130	.271**	.150*	1							
건강/활력	.134	.180*	.102	.741**	1						
정서상태	.111	.194**	-.064	.743**	.492**	1					
경제활동	-.135	.102	.001	.661**	.441**	.41**	1				
자아존중감	.160*	.256**	.078	.751**	.513**	.483**	.464**	1			
사회생활	.116	.243**	.270**	.785**	.487**	.412**	.464**	.541**	1		
가족관계	.106	.163*	.204**	.576**	.384**	.207**	.320**	.463**	.490**	1	
가정생활	.159*	.112	.288**	.496**	.253**	.159*	.223**	.427**	.416**	.569**	1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5%,1%를 나타냄. 표본수(N)=202개임.

4.3.3. 정보화마을과 일반마을 주민간의 삶의 질 차이

정보화 마을과 일반마을 간의 전체적인 삶의 질의 평균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적인 삶의 질 점수를 보면 정보화 마을이 107.39점으로 일반마을의 101.99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검정통계량 t=4.080으로 유의수준 5%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다음으로 삶의 질 세부 하위변인별로 살펴본 결과 삶의 질 중 정서상태 요인의 경우, 일반마을이 정보화 마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나머지 5개요인 경제활동, 자아 존중감, 사회생활, 가족관계, 가정생활 요인 등은 모두 정보화 마을주민의 삶의 질 점수가 일반마을 주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6. 정보화마을과 일반마을 간의 삶의 질의 차이

구분	마을	N	평균	표준편차	t
전체적 삶의 질	정보화마을	202	107.39	13.832	4.080**
	일반 마을	200	101.99	12.655	
건강과 활력요인	정보화마을	202	12.78	2.783	-1.371
	일반마을	200	13.14	2.441	
정서상태 요인	정보화마을	202	23.08	4.302	-2.354*
	일반마을	200	24.02	3.646	
경제활동 요인	정보화마을	202	9.39	2.151	4.346**
	일반마을	200	8.44	2.214	
자아존중감 요인	정보화마을	202	21.50	3.859	4.605**
	일반마을	200	19.78	3.604	
사회생활 요인	정보화마을	202	21.43	3.357	6.905**
	일반마을	200	19.04	3.568	
가족관계 요인	정보화마을	202	7.25	1.210	2.887**
	일반마을	200	6.89	1.306	
가정생활 요인	정보화마을	202	11.63	1.637	4.873**
	일반마을	200	10.74	2.018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5%,1%를 나타냄.

4.4. 인구학적 특성과 정보화수준이 주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4.4.1. 개별 변인들이 전체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정보화사업 마을주민들의 삶의 질은 인구학적 특성과 정보화수준요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변수간의 검증된 결과가 실제로 두 변수간의 작용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외부변수가 두 변수에 작용하여 공변성을 일으키는 것인지를 확인하기위해 성별, 연령, 교육수준, 생활수준, 직업을 통제 변수로 통제한 후에도

유효한지를 재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명목형 변수를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3]. 우선 1단계에서는 외부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변수만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2단계는 통제변인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외부변수들을 통제한 후에 독립변수들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전체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구분		1단계			2단계		
		B	β	t	B	β	t
상수		93.143		47.768	114.833		22.808
독립변수	컴퓨터 1일사용량	1.917	0.116	2.078*	-0.595	-0.036	-0.673
	컴퓨터 활용 능력	2.88	0.16	2.66**	-0.302	-0.017	-0.286
	생활 변화 정도	0.94	0.113	2.091*	1.38	0.166	3.197**
통제변수	성별더미				0.41	0.014	0.312
	연령				-0.136	-0.125	-2.237*
	교육수준더미1				1.78	0.059	0.922
	교육수준더미2				7.233	0.264	3.443**
	교육수준더미3				5.484	0.15	2.004*
	생활수준더미1				-5.265	-0.178	-2.663**
	생활수준더미2				-14.739	-0.434	-6.292***
	직업더미1				-4.156	-0.15	-3.041**
F		13.951***			14.293***		
R		.308			.537		
R square		.095			.288		

주) *, ** 는 각각 유의수준 5%,1%를 나타냄.

1단계와 2단계의 F값과 확률값이 보여주듯이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어 전체 회귀식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단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독립변수만을 투입한 1단계에서는 컴퓨터 1일사용량, 컴퓨터 활용능력, 생활변화정도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이때의 비표준화계수가 (+)의 값을 가지므로 컴퓨터 활용 능력이 삶의 질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3] 더미변수는 성별(남성, 여성)은 1개 더미변수, 교육수준(초졸 이하, 중졸, 고졸, 대중퇴 이상)은 3개 더미변수, 생활수준(높음, 보통, 낮음)은 2개 더미 변수, 직업(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와 아닌 경우)은 1개 더미 변수를 생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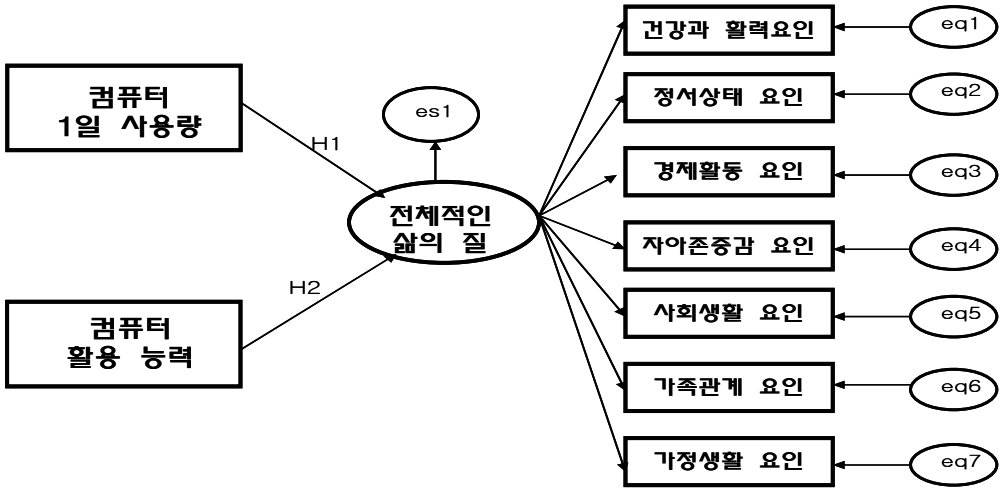
통제변수를 추가한 2단계에서 개인특성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는 생활변화정도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변인 중에서는 정보적 삶의 질에 대해서는 교육수준이 초졸 이하인 집단을 제외하고는 생활수준과 연령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컴퓨터에 대한 사용량과 활용능력에 대한 격차가 모든 집단에서 삶의 질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졸 이하의 집단에서는 컴퓨터 사용을 통한 삶의 질 변화에 대한 기대수준 자체가 낮아 컴퓨터 교육을 통한 삶의 질의 변화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4.4.2. 개별 변인들이 구조적으로 전체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분석

(1) 연구모형

이상과 같이 제 변인들의 상관관계 및 회귀분석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구조모형을 설정하였다. 즉 회귀분석결과 '컴퓨터 1일사용량'과 '컴퓨터 활용능력'의 2개 변인이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생활정도 변화 변인을 추가할 경우에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변인들의 영향력이 커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교육수준과 직업 등은 개인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더욱 근본적인 변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컴퓨터 1일사용량'과 '컴퓨터 활용능력' 2개 변인에 국한하여 이 변인들만이 실질적으로 삶

그림 1. 구조방정식 연구모형도



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분석에 의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림 1>과 같이 2개의 가설 H1(컴퓨터 1일사용량은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다), H2(컴퓨터 활용능력은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줄 것이다)를 경로로 설정한 연구 모형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제 변인들의 상호 영향관계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모형의 적합도 분석

연구 모형에 대한 적합도 진단을 위해 구조방정식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χ^2(카이자승 통계량)=(47.277), df. (자유도)=(23), p값=(.002), GFI(기초적합도 지수)=(.975) AGFI(준적합지수)=(.951)로 분석되었다. CFI=(.976), NFI=(.956), RMSEA =(.051)로 나타났다. 따라서 적합도 지수는 0.976 전후로서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표 8. 연구 모형의 적합도 검증

	χ^2(p값)	$\triangle x^2$	GFI	AGFI	CFI	NFI	RMSEA
적합 지수	47.277 (0.002**)	2.056	0.975	0.951	0.976	0.956	0.051

(3) 연구가설 검정결과

컴퓨터 1일 사용량, 컴퓨터 활용능력, 생활변화정도 등과 전체적인 삶의 질 간의 구조적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컴퓨터 1일 사용량이 전체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CR=2.552($p<.05$)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컴퓨터 1일 사용량이 증가하면 전체적인 삶의 질도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1은 채택되었으며 컴퓨터 1일 사용량이 전체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도 전체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CR=3.911($p<.05$)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즉, 컴퓨터 활용 능력이 증가하면 전체적인 삶의 질도 유의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H2는 채택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구조방정식 모형 경로계수 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비표준 경로계수	표준 오차	표준화 경로계수	C.R.	p	가설 검증
전체적인 삶의 질	컴퓨터 1일사용량	0.278	0.109	0.156	2.552	0.011*	채택
전체적인 삶의 질	컴퓨터 활용 능력	0.476	0.122	0.246	3.911	0.001***	채택

주) *, ***는 각각 유의수준 5%, 0.1%를 나타냄.

구조방정식 구성 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10>과 같다. 제 변인들이 직, 간접적으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조방정식 변인들의 효과의 크기는 위에서 제시한 경로모형을 따라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의 크기를 나타낸다.

표 10. 구조방정식 변인들의 직접·간접효과 및 총 효과 분석

		컴퓨터 활용 능력	컴퓨터 1일 사용량	전체적인 삶의 질
전체적인 삶의 질	직접효과	0.246	0.156	0
	간접효과	0.246	0.156	0
	총효과	0	0	0
가정생활	직접효과	0.148	0.094	0.602
	간접효과	0	0	0.602
	총효과	0.148	0.094	0
가족관계	직접효과	0.145	0.092	0.59
	간접효과	0	0	0.59
	총효과	0.145	0.092	0
사회생활	직접효과	0.183	0.116	0.743
	간접효과	0	0	0.743
	총효과	0.183	0.116	0
자아존중	직접효과	0.205	0.13	0.833
	간접효과	0	0	0.833
	총효과	0.205	0.13	0
경제활동	직접효과	0.149	0.094	0.604
	간접효과	0	0	0.604
	총효과	0.149	0.094	0
정서상태	직접효과	0.087	0.055	0.355
	간접효과	0	0	0.355
	총효과	0.087	0.055	0
건강과 활력	직접효과	0.136	0.086	0.555
	간접효과	0	0	0.555
	총효과	0.136	0.086	0

5. 결론

지식정보화시대는 한 사회의 경제와 복지, 문화 등에 관한 정보를 창출하고 저장 활용함으로써 정보교환이 사회활동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보화 사회란 사회, 경제 활동의 중심이 재화생산에서 서비스와 정보, 지식의 생산으로 옮겨지는 사회로서 정보화 시대의 도래는 우리가 알고 있던 다른 무엇보다도 실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정보화마을사업'이 농촌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파악하고, 정보화마을사업이 조성된 농촌지역 주민과 일반 농촌지역 주민 간의 삶의 질 차이를 비교 조사하고자 서부경남 일부 농촌지역 5개 마을과 정보화마을사업이 조성되지 않은 5개 일반마을에 구조화된 설문지면담과 관계자 심층의견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먼저, 정보화마을주민의 대다수가 정보화 마을사업이 조성된 후 생활의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소득 증가에 대한 기대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다음으로 정보화마을과 일반마을주민 간의 전체적인 삶의 질 점수와 7개 요인별 점수 모두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정보화마을사업이 조성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이 일반마을 주민보다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정보화마을 주민대표와 시·군관계자 의견조사에 의하면 정보화마을사업이 조성된 농촌지역 주민대표들이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을 기대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체 농촌주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져야 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 외, 비교그룹으로 선정된 일반 마을 주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대부분 농촌주민들이 무역개방 이후 더욱 어려워지는 농촌경제에 정부의 중·장기적 지원을 요청했고, 마을회관 외에 달리 갈 곳이 없는 농촌노인들의 여가선용과 건전한 놀이문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정보화마을과 비교지역인 일반마을을 대상으로 설문지면담과 개방형태의 의견조사를 실시하였지만, 조사대상지역이 서부경남 일부지역이고 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참여하지 않은 주민보다 정보화사업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더 인식하고 있거나 평소 정보화사업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일 수 있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정보화마을사업지역 주민이라는 모집단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연구의 제한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정보화마을주민의 삶의 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해 고안되어 수정과 보완 과정을 거쳐 개발된 삶의 질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면담과 사례별 심층 의견조사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조사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였으며, 더욱이 다른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기간에 대조군 지역조사를 함께 수행함으로써 정보화마을사업 조성이 농촌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대조군 그룹과 비교하며 차이를 파악하였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공분산 구조분석에 의한 연구결과, 컴퓨터의 1일 사용량과 컴퓨터 활용능력의 증대를 통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의해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 정보화 사업은 농촌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에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농촌 정보화마을사업은 농촌지역이 새로운 개념의 신 농업사회로 변화될 수 있는 강력한 동인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정보화와 소득 등의 격차를 완화시키고 국가 전역이 고루 발전될 수 있는 국가적 정책대안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전체 농촌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는 정보화마을사업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포괄적이고 거시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농촌 정보화마을사업의 활성화와 포괄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농촌정보화마을사업의 전수역학조사와 함께 우리나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모형개발을 위한 폭 넓은 후속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김귀영. 2005. “정보화마을 사업의 주민만족도 및 소득기대효과에 관한 연구(경기도 정보화마을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테크노경영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동원, 김부철. 2006. “정보화마을의 성공요인을 통한 발전모델의 수립.”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3권 제1호 pp. 1-30.

김정원. 2009. “농어촌 정보화 마을의 정보화 교육실태와 개선방향: 성주 도흥 참외 정보화 마을을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옥성. 2005. 「교육정보화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현희. 2004. “지역정보화사업과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 관한 연구(정보화마을사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노유자. 1988. “서울지역 중년기 성인의 삶의 질에 관한 분석연구.” 연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대식, 마상진. 2007. “도시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지수화 방안연구.” 농촌경제 제30권 제4호.

서진완. 2005. “정보화마을사업의 딜레마와 방향성의 모색.”「한국정책과학회보」제9권 제3호. pp. 95-114.

신도철. 1981.「한국인의 삶의 질 대연구: 주관적 지표에 의한 분석」. 정경문화.

이경은. 2000. “정보화와 삶의 질에 대한 고찰.”「사회과학연구」제26집. pp. 213-237.

이병수. 2004.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에 관한 연구.” 충주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석신. 2003. “정보화시범마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원주 황둔, 송계와 춘천 솔바우 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석재, 조주은. 1997. 정보화와 삶의 질.「한국통신학회」학술대회자료. pp. 102-115.

이영균. 1997. “삶의 질 측정지표 및 측정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집.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편).

장중탁. 2000. “노인복지 정보화추진 전략.”「노인복지연구」제8호. 한국노인복지학회.

정우열. 2003. “정보화마을의 운영평가와 정책과제(경상북도의 사례).”「한국 지방자치학회보」. 제15권 제3호(통권43호).

조명한. 1993. “정보화사회에서의 삶의 질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92 통신학술 연구과제.

조옥성. 2006. “히타요가를 수련하는 중년여성의 삶의 질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우석대학교 체육학과 박사학위논문.

최미영. 2002.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보화교육의 중요성과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창우. 2008. “전자상거래 확대를 통한 정보화마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국전산원. 1996. 정보화와 삶의 질.

행정안전부. 2002. 2003. 2004. 2005.2006. 2007. 2008. 2009.「정보화마을 조성사업평가 및 정보전략계획연구」,「2007년 정보화마을사업계획」,「1차~8차정보화마을 조성계획」.

행정안전부. 2009. 정보화마을 조성현황.

Kim, Y.J., Yoo, H.J., Kim, J.C., & Han, O.S. 2003. “Preoperative quality of life in rectal cancer patient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2. pp. 215-229.

Dubos, R. 1976. “The State of Health and Quality of Life.” *Western Journal of Medicine*. Vol. 125. pp. 8-9.

Padilla, G.V and Grant, M..M. 1985. “Quality of Life as A Cancer Nursing Outcome Variable.” ANS. Vol. 8. pp. 45-47.

Rosenberg. M. 1973. “Which is significant others?” *American Behavior Scientist.* Vol. 16. pp. 829-860.

Schuler, D. 1996. *New Community Networks: Wired for Change*. New York ACM Pressk Spitzer.

Taft, L.B. 1985. “Self-esteem in later stage: a nursing perspective.” Advances in Nursing Science. Vol. 8. No. 1. p. 79.

정보화마을사업 공식홈페이지. <www.invil.org>.

원고 접수일: 2009년 4월 16일
원고 심사일: 2009년 5월 8일
심사 완료일: 2009년 7월 15일